

좋은 사람 되기(누가복음 14)

성경말씀: 눅6:37-42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세운다. 유대교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세운다.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눅6:20-26), 제자의 인간관계: 급진적(파격적)으로 사랑하기(6:27-36), 본성 이상으로 해야 한다(32-34).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35)
요약: 36절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좋은 교회

교회: 그리스도의 사람들,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개독교, 먹사, 기독교 혐오증에 시달린다. 우리의 고민: 사도 바울 우리 모두가 몇 십 년 동안 바른 교회를 찾아 헤맸다. “바른 말씀이 있으면 바른 교회?”

바른 교회라고 왔는데 사람들의 언어, 행실, 교회 운영이 비상식, 비합리적이면 어떻게 할까?

킹제임스 성경 아니라 그 무엇을 이야기해도 거기서 퍼지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옳고 남은 틀린다. 긍휼 없이 비판, 비판, 비판, 사람(교회)을 망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른 교회보다는 좋은 교회를 해야 한다.”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으로 구성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중 하나는 좋은 사람, 특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

그래야 본인, 가정, 교회, 국가가 좋게 된다. <좋은 사람 되기>

좋은 사람의 특징(눅6:37-38)

원수도 사랑,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 뒤 곧바로 급진적 사랑, 좋은 성품의 예가 나온다(37-38).

1. 판단하지 않는다. 2. 용서한다. 3. 주고 베푼다.

1. 수용할 줄 아는 사람(37),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37절 말씀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오용되는 말씀

무언가 비판을 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성도들도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권면하면 이 구절 인용, 누구나 판단받는 것 싫어함
그러면 성도들은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매일 판단하며 산다: 먹고 입고 다니고 일하고, 결혼, 직장, 학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판단해서. 나의 죄, 구원자, 베팅, 성화도 판단(그리스도의 심판석)

왜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나? (1) 바로 뒤의 43-45를 보면 열매로 판단하라고 하신다.

(2) 바울의 판단, 고전5장: 음행한 자 판단, 6장: 법정 고소, 판단

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삶이 망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구원 성화, 보상도 없다.

심지어 성경도 판단해야 한다. 바른 성경, 빠진 데가 있는 성경, 동성애, 종교통합 등 판단
그러므로 항상 주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이 구절은 무엇을 뜻하나?

성경 말씀은 항상 문맥으로 이해해야 한다.

27-36절: 급진적으로, 파격적으로 사랑해라. 결론: 긍휼을 베풀어라(36).

그리고는 “판단하지 말라”가 나옴. 성경 전체와 문맥으로 볼 때 이 말은 좋은 제자가 되려면 ‘긍휼 없이 판단만하고 정죄하는 기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능하면 용서하라는 말이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판단해서 조치를 취할 일들이 있다. 바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매사를 긍휼없이 비판의 눈으로 보고 정죄하면 그 사람과 교회에 기쁨이 없다.

즉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부모처럼.

비판적 시각은 많은 경우 알지 못하게 그 사람 자체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낸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많은 경우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윗과 밧세바, 나단 대언자(삼하12:1-7), 부유한 자(많은 양), 가난한 자(암양 하나, 딸처럼 키움),

부자에게 손님, 가난한 자의 어린양을 빼앗아 잔치, 5-7

바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에게 무한 관대, 남에게 무한 비판

대개 욕심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욕심을 비판한다. 야망, 거짓말쟁이 비판은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쉽게 전염된다.

릭크맨 목사, 훌륭한 분, 그런데 책의 삼분의 일이 남 비판, 그분의 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비판주의자가 된다. “나만 옳고 다 틀린다.”, 그분을 사도 바울의 반열에 앉힌다. No!

우리는 어떤가?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정죄하려고 하는가? 공홀을 베푸는가? 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 행하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성품의 사람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살기가 힘들다. 부부, 자식 간은 어떤가?

2. 용서할 줄 아는 사람(37),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역시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들을 용서하는가?(마6:12) 교리적으로 아니다. 그러나 좋은 제자가 되려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용서가 쉬운가? 대단히 어렵다.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의 과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용서하려고 해야 한다. 이것이 좋은 사람의 요건 이것 역시 공홀히 여기는 심정에서 나온다.

3. 베풀 줄 아는 사람(38), 줄 줄 아는 사람

누구나 받는 것은 좋아 한다. 성도라면 무엇이든지 줄려고 노력해야 한다.

1. 하나님께(고후9:6-7)

2.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로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고후8:1-2)

3. 바울의 고백(행20:33-35), 35절, 말씀도 주어야 한다. 미디어 선교, 전도 가능하면 무료로 이리 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주어진다(38).

4.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특징: 이 세상의 가장 큰 심판자, 우리의 죄들을 판단하시지만 공홀을 아끼지 않으신다. 용서하시고 주시되 자기의 몸까지 주신다. 우리도 이런 좋은 품성을 가져야 한다.

5.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찬양한다.

좋은 사람: 눈이 좋은 사람(39-40)

사람의 여러 지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 먼 자가 눈 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너무나 당연한 말 육적인 눈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바로 보지 않으면 다른 데로 빠지고 다른 데로 데려간다. 성경, 신구약, 율법과 은혜, 구원과 성화 딤후2:15, 바울의 기도(엡1:17-19)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 말씀으로 눈이 열렸다(시119:105; 98-101). 내 발에 등불, 내 길에 빛 성경이 열리면 문맹, 독재, 폭정도 퇴치된다. 교회의 모든 문제 사라진다.

이런 사람이 스승같이 된다(40). 그 당시 모든 지식은 스승에게 있었다.

스승처럼 되면 성공, 우리의 스승은 누구인가? 예수님,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41-42)

눈이 열리면 자기를 볼 줄 알게 된다.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남의 티를 빼낼 수 있을까?

티만 보이는 사람이 곧 비판, 정죄, 불용서, 자기에게만 관대함

예수님의 판단: 위선자(가장 나쁜 말), 성도라도 위선자가 되면 모두에게 해롭다.

결론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구원 OK, 그 뒤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 가정, 교회, 국가 가능하면 수용하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 눈이 열려서 자의 추한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보여야 이 일 가능, 우리 교회의 성장 원인: 좋은 리더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듣자.